**상공은행, 현지은행 인수해 추격 채비**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Indonesia Jakarta) 위스마 물리아타워에 위치한 상공은행 홍길동 부행장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새로 내야 할 지점이 6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상공은행은 이곳에서 작년에만 10개 지점(Branch Office)을 늘렸지만 다른 외국계 은행들과 경쟁(Competition) 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1. **현지 은행 인수하여 급성장**

인도네시아는 상공은행과 대한은행 등이 나름 현지 시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41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상공은행은 현지 은행을 사들여 철저한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상공은행은 2007년 빈탕마능갈 은행을 인수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와 공동 투자에 나서 사업 리스크를 줄였다

* **인도네시아 은행 지점 수[[1]](#footnote-1)**

(단위: 백 개)

|  |  |  |  |  |
| --- | --- | --- | --- | --- |
| 구분 | 2018 | 2019 | 2020 | 비고 |
| 외국계 | 68 | 74 | 78 |  |
| 국영 | 41 | 44 | 53 |  |
| 지방 | 14 | 14 | 17 |  |
| 외국환 | 11 | 12 | 14 |  |
| 평균 | 33.50 | 36.00 | 4 |  |

홍 부행장은 "당시 현지 은행을 사들이지 못했다면 인도네시아 진출은 거의 불가능 했을 것" 그는 "대출자산 기준으로 70%가 인도네시아 기업과 현지인 대출" 이라고 말했다. 300만 달러를 처음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렸다. 인수 첫해인 2008년 말 총자산을 1조 루파아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5조 2280억 루피아로 급성장했다. 작년 한 해에만 총자산이 42%나 늘었다. 대출과 예수금은 지난 1년간 각각 66%, 52% 늘었다.

1. **대한은행도 경쟁력 갖춰**

대한은행은 지난해 6월 사우다라은행 지분 33%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승인이 나면 공격적인 영업 전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우다라은행은 100여 지점에 1,6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형은행이다. 인도네시아 대한은행장은 "현지 대형은행과 경쟁하려면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우다라 은행 인수에 나섰다" 로 말했다.

오승하 기자(Korcham.sanggong.com)

1. 자료:인도네시아은행협회 [↑](#footnote-ref-1)